

이오플로우, 이오펌프 생산시설 대규모 투자 결정

- ▶ 한국산업은행 대출 통해 180억원 규모 자금 조달
- ▶ 신공장 리모델링과 기계설비 확충을 위한 추가 투자 단행
- ▶ 자동화 설비 도입하며 생산원가 개선 & 수출확대 예상으로 인한 선제적 대응능력 확보

[2021-09-06]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294090, 대표이사 김재진)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핵심부품 '이오펌프' 생산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이오펌프 신공장의 리모델링과 자동화라인 구축을 위해 금번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26일 180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6월 경기도 광주 지역 내 이오펌프 생산공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했다. 회사는 현재 이오펌프의 핵심 부품인 이오펌프 및 완제품인 이오펌프를 외주 생산 중인데, 그 중 구동부인 이오펌프의 생산을 내재화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오펌프는 웨어러블 인슐린펌프 '이오펌프'의 핵심 구동부에 해당한다. 회사는 이번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이오펌프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춰 높은 성장세에 선제적인 대응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자동화 설비 도입 시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원가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는 이오펌프는 현재 회사의 주력 제품인 이오펌프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 뿐 아니라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인 비 인슐린계 웨어러블 약물 전달 플랫폼, 웨어러블 인공신장 등에 널리 적용되는 핵심 구동부인만큼 향후 예상되는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어 신공장은 엄격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맞춰 구축되며, 유럽의약품청(EMA)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생산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는 "이오펌프의 자동화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미 본 구동부의 생산공정이 안정화되었으며, 향후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유럽, 중국, 미주 등 앞으로 예상되는 해외 물량 증가에 대비해 핵심 구동부 부품의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하면서 궁극적으로 월 백 만개 이상의 물량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